

서울 당서초등학교 6학년 7반 7번 유선하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바람이 불, 흐림.

제목 : 아침에 미리 맞춰놓은 디지털 시계의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깼다. 주말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다. 평소엔 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 김
등을 먹지만 오늘은 그냥 버터를 바른 식빵
후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아침 식사 후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일요일 아침엔 주로 뉴스나 지역의 특산물 등을
소개하거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대부분의 집이
그렇듯이 우리집도 TV가 2대이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창 밖에는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와 빌딩이 많이
보인다. 도시라서 빌딩이 많고, 도로도 많다. 보통은
밖으로 나가지만, 오늘은 그냥 집에 있기로 했다.

점점 여름이 되고 있어서 냉장고에 있는 얼음 얼리는
통에 물을 부어 놓았다. 몇 시간 뒤면 얼 것이다.

점심 식사는 계란과 햄, 김치와 밥을 함께 볶아
만든 볶음밥을 먹었다. 그 후 문체집을 좀 풀고

쉬 다음 저녁은 식당에서 스테이크도 먹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칫솔로 양치질한 후 TV를 보았다
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